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영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요약 >

중국은 북한에게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투자국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대북 투자 확대를 통해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현황 및 선점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북투자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은 대북투자액의 70% 가량을 광물자원에 투자하고 있는 등 북한자원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담배(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 합자회사), 컴퓨터('아침-팬터컴퓨터' 합영회사), 슬레이트, 유리, 트랙터, 소비재(슬리퍼), 자전거, 극세 아연분말 생산('길림성 보리마금속유한공사' 합자회사) 등 제조업 부문에도 대북 투자가 행해지고 있다. 물류 분야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물류센터 기능을 겸한 물자교류시장을 신의주 및 온성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유통·운수 서비스 부문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특구 건설 투자로는 함경북도 온성군에 호시무역구(互市貿易區) 건설에 합의하였다. 또한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북 투자로 북·중 '훈춘-라선 일체화(도로 연결 및 보세구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중국의 대북투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으로부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분야인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 내 담배 생산회사, 제조업 진출 등을 통해 향후 북한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는 대북 지원 및 북한의 대중 의존도 제고를 통한 중국의 對미對한반도對한국 영향력의 제고 및 전략적 계산으로도 평가된다.

따라서 에너지 확보 및 자원 선점 차원에서 남한의 북한 자원개발 경험 확대 및 투자가 요구된다. 북한의 인력자원과 지하자원, 관광자원 등 부존자원 활용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북한 경제 회생에 중점을 두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지하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로 인한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 일변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한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 남북 경험 사업 계획을 이행하고 新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 중국 기업들이 추진하는 도로·철도, 에너지 등의 SOC 인프라 구축 사업에 공동 참가하여 부존자원개발에 남북중의 협력·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취약한 SOC 인프라 구축과 물류유통망 확충은 북한의 경제난과 외화난 해결은 물론 남북경협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 부문의 남·북·중 공동 사업 추진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들어가며

중국은 2001년부터 대북 투자액을 늘려 왔으며, 특히 2005년 이후 투자 기업수, 투자액 측면에서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도입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투자 설명회 확대 등으로 중국의 대북 투자는 다시 증가하였다¹⁾. 또한, 중국은 북한과 2005년 3월 '투자 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4년에 899만 달러, 2005년엔 1,437만 달러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북한이 유치한 외국투자 총액 4,738만 달러의 30.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²⁾.

< 중국의 대북투자 추이 총규모 >

(단위 : 천 달러)

연도	1990년 이전	1991	199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투자액	790	48	270	160	610	-	2,600	1,503	3,526	8,999	14,372	14,510	47,388
기업수	2	1	1	1	1	-	2	4	5	8	13	14	52
점유율 (%)	1.7	0.1	0.6	0.3	1.3		5.5	3.2	7.4	19.0	30.3	30.6	100

주: 점유율은 중국의 총 대북 투자액 중의 연도별 비율임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p.49 및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동북아 경제이슈』 2007년 3월호, p.97, 중국상무부, "2006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자료(2008. 3월 검색) 참조

중국은 북한에게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투자국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³⁾. 중국은 북한의 제1의 교역 상대국으로 북한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대북 투자 확대를 통해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⁴⁾. 특히 남한은

- 1) 특히, 최근 중국 기업의 대외직접투자액은 2006년도에 212억 달러(세계 17위 규모)에 달했으며, 대내직접투자액(695억 달러로 세계 5위 규모)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2006년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중국통계연감』 2007년.
- 2)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4년에 5,000만 달러, 2005년엔 1억 달러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북한이 유치한 외국투자 총액 1억 1,300만 달러의 88%를 차지하는 규모로 산정하고 있음.
- 3) ‘북·중관계의 긴밀화’라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 주요 근거로는 1) 1999년~2000년 이후 양국 고위급 지도자 교류의 재개·증가, 2) 양국간 교역량의 대폭 증가, 3) 북한의 對중국 경제의존도 증가 및 북한내 중국산 공산품 비율 증가(80% 이상 등), 4) 2004년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 및 자원개발 노력 제고 등이 거론되고 있음.
- 4) 2008년도 북한의 대외경제전망에 관해서는, “2008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8-08호, 2007년(2월 26일). “2007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은 6자회담의 2 .13 합의에 따른 북핵문

200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북 투자 등을 통한 남북 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현황 및 선점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북투자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⁵⁾.

< 북한의 대남·대중·대일 의존도 추이 >

(단위 : 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무역액	19.7	26.7	29.0	31.15	35.54	40.57	43.45
중국 (의존도)	4.88 (20.4%)	7.37 (27.6%)	7.38 (25.4%)	10.23 (32.8%)	13.85 (39.0%)	15.80 (38.9%)	16.99 (39.1%)
일본 (의존도)	4.64 (19.4%)	4.74 (17.8%)	3.69 (12.7%)	2.65 (8.5%)	2.52 (7.1%)	1.94 (4.8%)	1.21 (2.8%)
한국 (의존도)	4.25 (17.8%)	4.03 (15.1%)	6.41 (22.1%)	7.24 (23.1%)	6.97 (19.6%)	10.56 (26.0%)	13.49 (31.1%)

자료 : KOTRA, 『2006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65 쪽.

중국 대북투자 동향 및 투자전략 평가

목적별 대북 투자 현황

① 자원 개발

중국은 대북 투자액의 70% 가량을 광물자원에 투자하고 있는 등 북한 자원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1991년 5만 달러에서 2005년 1,500만 달러로 급증하였는데 이 가운데 광물 에너지 자원 확보 목적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6년 한국의 북한 광물자원 도입규모는 5,973만 달러로 중국의 21.8% 수준(2006년 중국의 북한광물도입 규모: 2억 7,453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주요 대북 자원 투자 대상지역은 광종이 집중해 있는 단천지역⁶⁾, 평북(용등탄광: 무

제의 진전과 북미 양자 대화의 복원, 남북관계의 개선 및 정상회담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사실상 해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13 합의의 이행이 BDA 문제로 상당 기간 지연됨으로써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이 정체 내지는 감소⁷⁾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무역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한층 심화되었고,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음. 同보고서, p.2

5) 중국의 「대외직접투자(走出去)」 전략은 ‘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에 처음으로 제기된 국가정책으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에도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음. 「대외직접투자(走出去)」 전략 출현 이전에 중국은 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의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고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에 관해서는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극히 소규모에 머물러 왔음

연탄), 양강도(혜산 銅鑛), 함북(무산광산) 등이다. 이는 남한이 투자할 계획 중에 있거나 조사 중인 단천지역, 평북과 중북되며, 나머지 함북북부 및 평안남북부 탄전개발지구, 황남, 평남-황북, 함북 개발지구 등은 아직까지는 남한의 단독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중국이 북한에 자원개발을 제의한 광종은 금광, 철광, 동광, 몰리브덴광, (석)탄광 등으로 광업진흥공사에서 분석한 10대 전략광종에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자원개발 부문 >

대북 사업	사업 내용
황금채굴 및 제련	- 초원산동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 조선 대경추 간 MOU 체결. 북한 산농산 금광개발 합작투자논의(2004년 9월 濟南日報)
용등탄광 개발 사업	- 북한 평안북도에 위치한 용등탄광을 중국 기업인 '중국우광(五鑛)그룹이 개발 - 통화철강그룹, 연벤텐츠공사와 컨소시엄 구성(2005년 10월 길림일보, 2006년 3월 연합통신)
양강도 혜산동광 공동개발 프로젝트	- 창바이자오진광업주식유한회사 설립(약 2,680만 달러 투자) - 양강도 혜산동광에서 공동개발 프로젝트 진행(2005년 1월 연합뉴스)
함경북도 무산광산의 채굴(50년) 사업	- 중국 통화(通化)강철그룹이 함경북도 무산철광 개발에 70억 위안을 투자 - 투자 대가로 무산광산의 50년 채굴권 획득
북중 해상유전 공동개발	- 남포항 인근 황해~중국 보하이 만 일대에서 북한과 해상유전 공동개발 추진(2005년 12월)
제철소 설립	- 中 탕산강철그룹, 북한(김책공업원)에 제철소 투자
몰리브덴광	- 중국 林寶광산개발유한공사가 201만 달러 규모 투자
갑산문락평 자철광	- 중국 서광공무유한공사가 북한개선무역회사와 협정

6) 남한도 단천지역을 지하자원개발 특구로 개발할 것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으며, 북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7) 나머지 5가지 광종으로는 아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인, 흑연, 석탄

< 북한광물자원 관련 동향의 한중간 비교 >

구분	한국	중국
광물도입액	5,973만 달러(2006년)	2억 7,453만 달러(2006년)
최근 대북 자원투자 사례	- 정춘 흑연광산 개발 - 황해남도 석회석광산 투자 의향서 체결	- 주요 5개 광물 조사·개발·판매권 확보 ·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몰리브덴 등 - 무산, 덕현 등 주요 철광 개발권 확보 - 헤산청년동광(최대 구리광) 운영기업 인수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현황” 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 2007년 11월.

② 제조업 분야 8)

2007년 11월 6일 중국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轉賣局)은 중국의 길림연초공업유한공사(吉林煙草工業有限公司)와 북한의 연초수출입상사(煙草輸出入商社)의 합자회사인 평양백산유한책임공사(平壤白山煙草責任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길림연초공업사는 북한내 평양백산연초사, 대동강연초사, 라선신흥연초사의 3개 담배 생산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향후 북한 내수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와 북한의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가 합자투자(130만 달러)하여 ‘아침-팬터컴퓨터’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컴퓨터 생산 중이다. 또한 중국의 지린성 방직수출입공사 및 북한 준영 초과학주식유한회사가 공동 투자하여 슬레이트 생산 공장 설립하였으며, 평안남도 대안군에 중국의 ‘요화유리집단공사’가 유리공장 건설에 4,000만 달러 투자하였다. 중국의 ‘허난성 중국일타집단유한공사’는 북한의 ‘조선금성트랙터공장’ 간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트랙터 생산에 투자하였다⁹⁾. 중국의 플라스틱 일용품 제조사인 푸젠성 ‘푸저우시 푸산 플라스틱’은 북한 묘향산집단 산하의 선봉집단과 플라스틱 슬리퍼 수출에 합의해 북한 시장에 진출하였다¹⁰⁾. 중국의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가 65만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 대외경제협력 창구인 무역성 산하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대경추)와 합작하여 자전거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다. 중국의 ‘지린시 대성경제무역유한회사’와 북한 직맹 산하 ‘문수회사’가 합자하여 ‘길림성 보리마금속유한공사’를 설립하여 극세 아연 분말을 생산(북한과 중국이 3:7의 비율로 출자함)중에 있다.

8) 조명철·양문수 외,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2006년;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Working Paper 246호, 2006년

9) 중국 최대의 농업기계제조업체인 하남성 일타집단 대표단이 2003년 11월에 북한 금성트랙터공장을 방문하고 트랙터의 조립, 디젤엔진, 오일 펌프 등 영역에서 합작 생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2005년 7월, p.22

10)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23일자

<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제조업 부문 >

투자분야	투자규모	비고
담배 생산회사	2천만 달러	- 북-중,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平壤白山煙草責任有限公司) 합자 설립(2007. 11) - 향후 북한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모색
컴퓨터	130만 달러	-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합자 →아침-팬더컴퓨터합영회사 설립
슬레이트	미상	- 지린성 방직수출입공사 및 춘영 초과학주식유한회사가 공동 투자 - 투자규모 및 위치 미상
유리공장	4,000만 달러	- 평남 대안군에 중국의 요화유리집단공사가 유락공장 건설 투자
트랙터	미상	- 허난성 중국일타집단유한공사, 조선금성트랙터공장 간 시행 계약 체결
플라스틱 생산	1,170만 달러	- 중국 푸산 플라스틱사는 북한 선봉집단과 슬리퍼 생산 공장 설립
자전거 생산	65만 달러	- 조선 대경추와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 공동으로 평진자전거합영회사 설립. - 20년간 자전거 생산 독점권 부여
극세 아연분말 생산	미상	- 지린시 대성경제무역유한회사와 북한 직맹 산하문수회사가 합자하여 길림성 보리마금속유한공사 설립. - 북한과 중국이 3:7의 비율로 출자

자료: 조명철·양문수 외,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2006년;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Working Paper 246호,
2006년 참고 재구성.

③ 물류·유통·운수업 분야

북한과 중국은 물류센터 기능을 겸한 물자교류시장을 신의주 및 온성에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지역 진흥 계획’을 확정(2007년 8월)하고, 신의주에 북한과 공동으로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 또한 중국 단둥변경경제합작구 관리위원회는 압록강변을 따라 조성된 ‘단둥임항산업원구’ 개발부지 안에 국제비즈니스단지 개발기로 하고, 이를 위

11)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동북지구에 장비제조업기지, 국가 신형 원료에너지보장기지, 국가중요상품 양식 농축산업기지, 국가 중요기술혁신기지, 국가 생태안전보장구 등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해 홍콩 소재 부동산개발회사인 뉴토니안 캐피털과 투자협약서와 국유토지 사용권 예약양도 협의를 체결하였다(2007. 8. 15)¹²⁾. 온성군에는 북중 공동 '물자 교류시장' 건설에 합의하였다¹³⁾. 이외에도, 유통·운수 서비스 부문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라진항의 50년간 독점 사용권 대신에 북한 내 도로와 관광시설 및 공업단지 조성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평양 제1백화점에 5,000만 위안화를 투자하고 10년간 임차권을 확보하였다.

<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물류·유통·운수업 부문 >

대북 사업	사업 내용
- 백화점 운영(1)	- 저장성 등양귀하오(東陽國浩)무역유한공사, 평양제1백화점 1층만 임대하여 5년 경영권 분양(2005년 8월 동방조보)
- 백화점 운영(2)	- 중국 선양 중쉬그룹과 평양제1백화점이 합작투자 (5,000만 위안=600만 달러) - 수입관세 5%, 소득세 5%만 부과하는 특혜 제공
- 신의주 북중 물류센터	- '단둥임항산업원구' 개발부지 안에 국제비즈니스단지 개발 - 중국 측이 자금과 건설자재 제공 ⇔ 북한이 건설부지와 노동력 등을 제공
- 북중 물자교류시장 (온성군) 건설	- 중국 투먼(圖們)시가 시장 건립에 필요한 건설 자재를 제공하고 투자금은 시장 공동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의 일부에서 외화로 상환하는 형태
- 북중 합영 운수 사업	- 원저우낙청성 금괘속기차북무유한공사와 북한 조선올림운수합영 회사 합작(2004년 11월 연합뉴스)
- 단둥 철도 운송 사업	-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등 기업이 선양철도국 단둥철도국제 연합운수총공사, 단둥철도역 및 북한 철도성과 합자로 주식회사 설립 방안 동의(2005년 11월 흑룡강신문)

12) 뉴토니안 캐피털사는 앞으로 5년 동안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모두 3기 공정으로 나눠 국제비즈니스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임. 단둥경제합작구 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우선 2007년 말에 오피스빌딩과 오피스텔, 호텔, 병원, 컨벤션 센터, 강변산책로, 쇼핑센터 건설 등 1기 공정에 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해짐. 이를 위해 뉴토니안 캐피털사는 한국과 일본, 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들여 개발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Voice of America, 2007년 9월 10일자에서 재인용

13) 2007. 11. 2 연합뉴스 보도

④ 경제특구 및 SOC 인프라 구축¹⁴⁾

길림신문에 따르면, 최근 북한 무역성 중앙수출입물자교류회사는 함경북도 온성군 인민위원회와 중국 도문시(圖門市) 정부가 체결한 호시무역구 건설 계약을 승인하였다(2007. 11). 중국은 호시무역구 건설을 위해 북한에 건설자재를 선제공하며, 향후 호시무역구 운영을 통해 얻는 이윤으로 건설 자재비를 상환받도록 하는 경험 계획에 합의하였다. 또한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북중 '훈춘-라선 일체화' 사업 추진을 합의하였다¹⁵⁾. 중국 훈춘(琿春)~북한의 라선시 도로 연결 및 라진항에 공단 및 보세구역을 건설하는 사업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번 협의회서 체결로 북한의 청진시, 라선경제무역지대(라진항),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는 철도 운송루트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¹⁶⁾.

<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자원개발 부문 >

분야	대북 사업	사업 내용
SOC	북-중 '훈춘-라선 일체화' 사업	-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의 라선시 도로 연결 - 라진항에 공단 및 보세구역을 건설
	발전소 건설	- 라오닝 격림기(格林欺)투자유한공사가 4,500만 달러 규모 투자
특구 개발	북-중, 함경북도 온성군에 호시무역구(互市貿易區) 건설 합의	- 중국 권하(圈河) : 북한 원정리 국경무역구 - 중국 장백현(長白縣) : 북한 혜산 국경무역구 - 중국용정(龍井) : 북한 회령 국경무역구

중국 대북 투자 전략의 평가

① 자원 확보의 목적

해외투자를 강화하는 『중국 기업의 국제화 전략 보고 2007』(2007. 11)에 따르면, 「대외직접투자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국내 자원 부족의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¹⁷⁾. 이 중에서 대북투자와 관련한 '국내 자

14) 이외에도 중국의 북한 수산업 분야에도 협력투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는 북한의 상명무역총회사와 합작투자하여 원산 앞바다의 중국어선 입항을 5년간 개방하는 대신 입어로 명목으로는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

15) 훈춘시 인민정부 웹사이트 2008. 2. 14, 『연합뉴스』 2008. 2. 14일자 재인용

16) 북-중-러는 북한의 두만강과 중국 투먼(圖們), 러시아의 핫산역을 연결하는 '국제철도통로' 건설에 합의함(연변일보, 2007. 12. 26)

17) 대외직접투자 전략의 수단으로서, 우선적으로 ① 국내 자원 부족의 완화, 를 들고 있으며, 이 밖에도 ②

원부족의 완화' 항목은 중국의 공업화, 특히 중화학공업의 진전에 따른 향후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부족에 대비하여 기업의 국제화 진점 및 해외 자원의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4년 2월, '북경조화유련(北京朝華友聯) 문화교류유한공사¹⁸⁾를 설립하여 정부 차원의 대북 진출을 총괄하고 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중국의 대북투자의 첫 번째 특징은 북한으로부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분야인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⁹⁾. 중국의 대북투자는 주로 광물자원(70% 가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²⁰⁾, 관련 합의서 및 협정 체결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 사업 추진은 미비한 상태이다.

② 북한 내수 선점의 목적

중국은 북한 내 담배 생산회사, 제조업 진출 등을 통해 향후 북한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중 경협 확대는 공장 가동률과 성장 잠재력 제고, 설비 현대화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제난 해소와 경제 회생의 수혈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¹⁾. 또한 중국의 대북투자는 경영권 확보보다는 원자재 조달과 북한 시장 개척을 염두에 둔 보상무역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²⁾. 중국 정부의 대북 지원액은 2.5억 달러(1997~2004년)에 불과하나, 향후 중국은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대북 투자 실익과 연계한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²³⁾. 또한 투자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상정하여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 지원을 장

과잉 생산 능력의 해소 및 산업의 고도화, ③ 무역마찰의 완화, ④ 대외(무역)수지 불균형의 시정, ⑤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의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중국 기업의 국제화 전략 보고 2007 블루북』 2007.11(中国企业国际化战略报告课题专家委员会 『中国企业国际化战略报告 2007蓝皮书』 2007.11)

- 18) 이는 북한관광중국의 위임을 받아 민·관영을 통틀어 유일하게 자문 권한을 인정받은 기관임
- 19) 북한에는 중석, 몰리브덴 등 10대 광물 가운데 7종이 매장되어 있으며, 매장량 가치는 2,287조 원 규모로 세계 10위권임
- 20) 산은경제연구소는 “2002년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액 중 70%를 넘는 1300만 달러 어치가 철광·동광·몰리브덴 등 광산에 투자됐다”고 밝힘.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동북아 경제이슈』 2007년 3월호
- 21) 북중 무역이 1% 증가 시 북한의 전체 교역은 0.48%, 경제성장률은 0.11%, 국민소득은 0.20%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박순찬, 『북한과 중국간 무역이 북한의 경제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0.
- 22) 이는 보상무역이 투자 설비만큼 생산 제품을 보상받으므로 투자 리스크도 적고 상환 주기도 짧아 상호 결제 청산이 용이하기 때문임
- 23) 대표적인 정부차원의 대북투자(지원)로는 중국정부가 북한의 남포시에 400만 달러정도를 무상 투자하여 중국의 설비와 기술, 기술자들의 지원 하에 건설된 유리공장 설립을 들 수 있음.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북한에 국내 개발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북한의 내수시장 선점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대북투자 문제를 접근하는 새로운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

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대북투자 부문(SOC, 유통·운수, 수산협력, 제조업, 특구개발 등)의 추진 현황은 극히 미진한 상태이다.

③ 對동북아 외교·안보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제고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는 대북 지원 및 북한의 대중 의존도 제고를 통한 중국의 對미·對한반도·對한국 영향력의 제고 및 전략적 계산으로 평가된다. 북한 또한 다차원적인 외교적 고립 타개 노력 및 선별적 경제회생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 북한정권의 국제적 고립 및 경제난 해소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 증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북·중 간의 '교류·협력'이 증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외적 환경의 조성으로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

첫째, 에너지 확보 및 자원 선점 차원에서 남한의 북한 자원개발 경험 확대 및 투자가 요구된다²⁴⁾. 이명박 정부가 10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들고 있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원 외교'의 대상국으로서의 대북 투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²⁵⁾. 북한의 인력자원과 지하자원, 관광자원 등 부존자원 활용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북한 경제 회생에 중점을 두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지하자원 등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실행 단계에 들어설 남북한 간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은 단순한 바터형식의 교역(구상무역)에서 벗어나 폭넓은 남북 간의 산업협력으로 연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가 있다²⁶⁾. 특히 북한이 석탄과 광물 등 지하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 통제를 요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남한도 대응 여하에 따라 투자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재점검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시급히 북한광산개발정책을 마련하여, 남북 당국 간 회담 및 남북자원협력분과위원회(가칭) 구성을

24) 이명박 정부는 자원 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전략 부재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25) 특히 에너지 자원의 자주 공급율(자급율)이 4.2%에 불과한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북한을 대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쟁적 상황 하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26) 이석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 『e-KIET 산업정보』 2007. 7. 3

통해 관련 법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에 의한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 일변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한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 남북 경협 사업의 이행 및 新경협 사업 추진해야 한다²⁷⁾. 한국은 기존 저임금·저비용 공단 모델의 경협 추진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방식이나 분야를 개발하는 新경협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에 관해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²⁸⁾. 중국의 투자 선점 및 경제 의존도 심화·예속화에서 탈피하기 위한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경제협력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남북 경협에 대한 정경분리 원칙을 수행하여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북한과 중국 기업들이 추진하는 도로·철도, 에너지 등의 SOC 인프라 구축 사업에 공동 참가하여 남·북·중의 부존자원개발 협력가능 방식 추진 및 공조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한 SOC 인프라 구축과 물류유통망 확충은 북한의 경제난과 외화난 해결은 물론 남북경협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 부문의 남·북·중 공동 사업 추진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²⁹⁾. 가공수출형 투자의 경우, 경제특구(공단)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SOC 인프라, 물류, 노동력, 북한 내의 가용 원부자재 조달 등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한중 공동투자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협력 전략이 기존의 남한 우선 원칙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을 배제한 북한의 북·중, 북·러 우선 경협 전략을 차단하면서, 남한의 사업 진출 방안과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중·러 접경지역의 허브항으로 부상할 나진항 개발사업 참여하는 방안과 함께, 나진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 등에 관한 경제적(사업) 타당성 및 기술적 문제 등에 관해 검토할 수 있다.

27)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제3국들의 대북 진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본격화 될 경우, 남한의 경협 주도권 약화와 경합적인 상황이 우려되며, 한국의 경협 실익이 격감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28) 예를 들어, “(북한)자원개발 지원센터”(가칭) 등을 설립하여 대북 투자를 지원

29) 하나의 예로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SK네트웍스와 공동으로 중국 연·아연광을 개발키로 하고, 중국 형양 암토공정감찰원과 각각 지분 33.3%씩을 갖는 한중 합작회사(‘호남중한광업유한공사’)를 설립(2006. 4)하고 광물개발사업 분야에서 한중간 협력하고 있음